타이완, 전자파 흡수 스텔스도료 개발

50톤급 쾌속정 실험에서 레이저에 포착 안돼 … 개발기술 내용은 함구

타이완이 레이더 전자파를 흡수하는 도료를 개발해 스텔스 기술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타이완 군사 소식통들이 7월5일 밝혔다.

타이완 해군이 보유한 50톤급 바다갈매기(海鷗) 미사일 쾌속정에 개발 도료를 칠해 해상에서 실험한 결과 육안으로 식별하기 전에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았다고 군사 소식통들이 말했다.

해군사령부는 미사일 쾌속정을 대상으로 은닉 도료 실험을 실시했으며 구체적 내용은 군사기밀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타이완이 개발한 은닉 도료가 어떤 전투기, 함정, 무기 등에 실제로 사용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타이완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에도 불구하고 미국 무기를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등 방위력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7/06>